

전북·낙지·홍어 주식회사 생긴다

전남도, 15개 지역 주요 수산물 가공·유통 법인 설립

2010년까지 1,300억 투입, 어업 규모화·기업화 추진

전남도가 전북과 낙지, 홍어, 김, 미역 등 15개 지역 주요 수산물의 품목별로 생산과 가공, 유통을 함께 아우르는 법인 또는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어업의 경쟁력과 어가 소득을 끌어올리고, FTA와 DDA 등 세계시장 개방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선 수산업의 기업화,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서다.

전남도가 마련한 세부계획에 따르면 양식어업 품목인 전복의 경우 생산과 가공, 유통을 총괄하는 공동출자방식의 '전복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복 주식회사에는 50명의 생산·가공·유통·수출업자가 참여하며 완도와 해남, 진도지역의

관련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홍합 역시 여수시 가막반에서 홍합을 양식하는 49개 어가가 생산은 물론 가공과 유통까지 통합관리하는 어업회사법인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친환경 김과 매생이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생산과 가공체제를 구축하는 어촌계 공동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자잡지와 뽕잠자, 조피불락, 벌교 꼬막, 꼬시래기, 톳, 미역 등 7개 품목은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업화·규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선어업 품목 중에서는 낙지와 홍어, 조기, 잿새우 등 4개 주요 특산물에 대해 품목별 공동

경영체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낙지의 경우 지난 2002년 창립된 '탐도만 낙지자율공동체'를 확대, 13개 어촌계의 233명이 참여하는 '탐도만 낙지 광역공동체'를 설립하고, 홍어는 생산어업인과 수협, 중매인 등이 공동참여하는 '홍산홍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어선의 대형화로 어획능률 향상을 꾀하고 종전의 개별경영 형태에서 탈피해 동일업종의 어선 수척을 한데 묶어 회사체제로 전환, 근해어업주식회사 10개를 설립키로 하는 등 대형화·회사화를 추진한다. 또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양식어장의 공동운영 및 첨단 양식시설 설치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어업 규모화·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국비 435억 원과 도비 142억 원, 시·군비 306억 원, 읍자 170억 원, 자기부담 271억 원 등 모두 1천324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왜군을 속여라' 강진청자문화제 테마 허수아비촌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 13회 강진청자문화제에서 선보일 '테마 허수아비촌'이 강진만의 저녁 노을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왜군을 속여라'를 주제로 조성된 허수아비촌은 임진왜란 당시 강진만을 침범한 왜적을 허수아비 작전으로 물리쳤던 선조들의 지혜를 재현한 것이다. (강진군 제공)

담양군, 타 지역 복지단체 지원 말성

꽃길 조성 사업에 보조금...특혜 시비 일자 서로 "네 탓"

담양군이 타 지역 복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말성이 일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민심을 사고 있다. 29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광주 B복지단체는 바이오 디젤유와 식용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담양읍 강정리 하천 주변 6만여㎡에 해바라기를 심었다.

이 단체는 꽃길과 포도단지 등을 조성해 관광객도 유치하고, 해바라기 기름을 이용한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취지로 이 곳을 무상임대했으며 군 농정과로부터는 1천여

만원의 유기질 비료 구입비도 지원받았다.

더욱이 이 단체가 무상임대를 받는 과정에서 전 담양군의원이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내사를 벌일 만큼 과장이 커져서 군 내부에서는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통상 하천 부지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이 부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유로, 1999년 군이 꽃길 조성 등을 위해 임대한 곳

이어서 당시 허가를 주도한 환경과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과 관계자는 "전 군의원이 해바라기를 심는다고 해서 '우리는 허가할 권한이 없다'고 다른 과로 보냈었다"며 "임대 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모든 걸 책임지라는 논리라면 애초 땅 소유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또 비료 구입비를 지원한 농정과 관계자는 "담양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전 군의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비리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시의회 원구성 후에도 파행 여전

정찬걸 의원 등 무소속 5명 "합의 깬다" 의회서 농성

나주시의회가 한달여만에 가사로 원구성을 하고도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정찬걸 의원 등 무소속 의원 5명은 29일 오전부터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의장과 상임위원 1석 등을 양보키로 합의해놓고도 밀실합의를 해 자당(自黨) 의원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의장단 구성에 나섰으나 의장단 및 상임위원 자리 배분을 놓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대립하는 바람에 한 달 넘게 파행을 겪었다.

파행사태는 민주당이 전체 14명 의원 가운데 5명인 무소속 측을 배려하지 않는 싸늘이 원구성을 강행하면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전광호 나주시 부의장까지 중재에 나서 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 1석을 무소속 측에 양보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작 무기명 투표에서 이를 뒤집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1석에서 무소속 측에 양보키로 한 자치행정위원장에 이달초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 탄 김도 의원을 밀어 당선시켰다.

무소속 정찬걸 의원은 "무소속 의원을 빼내 당초 8대6에서 9대5의 구조로 만든 이유가 결국 사전 내락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비난했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찾아가는 축산서비스 '효과 만점'

축산부 '1인 1농장 도우미' 상반기 건의사항 16건 해결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축산농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실시중인 '1인 1농장 도우미' 활동이 농가의 애로사항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1농장 도우미'는 축산기술연구소 직원 1명이 결연을 맺은 농장 한 곳을 분기별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처리해주는 제도다.

연구소 직원들은 해당 축산농가에

서 원하는 시기에 현지를 방문해 축사 소독 및 분뇨처리, 사료주기 등 농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해 해결해주고 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올 상반기 동안 37개 축산농가를 찾아 농가와 함께 현장체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해결해줬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최근 화순군 박촌호씨 농장 등 7개 농가에서 요청한 가축의 주기적인 질병상담 및 질병검사를 연구소 사업계획에 포함해 실시해주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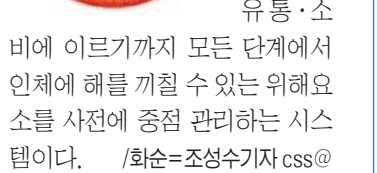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주)진선 화순점, 화순군 최초 HACCP 지정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주)진선 화순점이 지난 21일 화순군 관내 최초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됐다.

도곡면 대곡리에 있는 진선은 배추김치를 비롯한 각종 김치류와 식염 절임식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

HACCP는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중점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수산물품질검사원 완도지원-완도해경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업무 협약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완도지원(지원장 이화영)은 지난 24일 검사원 회의실에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업무 공조를 위한 상호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수산물의 특성상 생물학적으로 원산지 구분이 애매해 수입산은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난에 따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합동단속과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실무 노하우 공유 등으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게



이화영 완도지원장은 "수입 수산물 검사전문기관과 수사업무 전담기관이 상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정문조기자 ejchung@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변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발부모와 달신화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 02-281-0100, 02-281-4000, 02-779-0000

광주·전남 가능장학
大山프리모님녀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귀하의 발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문의: 062-573-5200, 673-4012